



나의 당신과 거울의 당신

다운고 1-5 임소정

빠져나온 머리카락 한 올이 흠이 될까 걱정인지
이른 아침, 한 겹 두 겹 쌓아 올린 화장이 지워질까 걱정인지
점심시간 때 먹은 고춧가루가 이에 껴 쪽이라도 당할까 걱정인지
입술 깨무는 버릇 때문에 분홍빛 립스틱 사라질까 걱정인지
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을 남들이 봤을까 걱정인지
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거울만 바라보는 당신에게……
말해주고 싶습니다.
‘내가 지켜보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웠다.’고
날 바라보던 그 눈빛, 날 아껴주던 그 말투
날 위해 웃음 짓던 그 입꼬리까지
‘내가 본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.’라고
전하고 싶습니다.